

# 상진케미칼

공 장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05-5

전 화 : (0341) 83-4233~4

사무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4-15

전 화 : 651-1679, 0229

F A X : 651-0339

상진케미칼(代表 : 李炳潤)은 Clean Room 용 분류형 바닥재를 생산하면서 직접 시공을 하는 업체로서 규모는 적지만 의외로 생산품종이 많고 종업원 모두가 의욕적이고 활기가 있으며 회사 전체가 따뜻하고 생동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상진케미칼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실은 불과 40평 정도이지만 실험기구와 Pilot설비와 수백종류의 시약품으로 packed 있으며 고분자과 화공과 출신의 연구원은 3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단히 분주하게 연구하고 있다.

상진케미칼은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에 토지 1,000평 건물 200평 전직원 20명의 소기업이지만 원부자재가 전공장에 가득 차 있으며 8명 밖에 되지 않는 생산직 직원들은 슬럼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상진케미칼 마크는 이병윤사장이 직접 도안한 것이라 하며 경영자와 직원, 자본과 기술 4요소가 한데 합쳐 영구히 전진함을 뜻한다고 한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社訓에서도 노사간에 단합된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나는 해야 한다는 使命이 있다  
나는 하면 된다는 信念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意志가 있다”

1984년 10월 상진企業社로 출발하여 1989년 12월 상진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연구실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91년에는 약 5억 원에 달하는 수입품 접착제를 국산화를 대체하는데 성공하였다.

1991년 총 매출액이 15억 원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50%의 신장을 한 셈이며 직원들의 연간 상여금도 기본 400%에서 60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좀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상진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재고 손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국 각 공장의 지붕 및 벽에 사용되는 방수 Sealing재인 Oil Base Caulking(KS F 3204)은 상진케미칼 제품의 품질이 인정되며 전국 판금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접착제는 특수 용도로서 합성 고무계, Epoxy계, Urethane계, Acryl계, Polyester

계 등 약50여종이 생산되고 있고 塗料型 바닥材 종류도 20여 종류가 생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상진케미칼 자력으로 개발하여 생산되는 10여 종의 특수 접착제는 2~3년간 꾸준히 연구하여 수입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국내 유명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 부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초전도성 접착제(Epoxy Resin Base Silver Compound 체적고유저항  $10^{-2}\Omega$  cm) 순간접착제( $\alpha$ , Cyano Acrylate Monomer) 항공기 구조용 판넬 접착제(Aluminium Honey Comb Adhesive) Epoxy계 1액형 접착제(Thermer Seteing Adhesive)등 Fine Chemical의 첨단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자금력 부족, 영업활동 부족, 국내기술 불인정 등으로 활발히 시장개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導價材(Conductinve Filer : Snx, Sbx)는 소량생산에 성공했으나(체적 고유저항  $10^4\Omega$ .cm) 초미립자( $0.2\mu$ )기술 부족과 연구 인력 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있다. 전자파 장애 방지, 정전기 장애 방지용으로 이용되는 특수 도전재료는 100%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수 도전 재료는 100%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진케미칼의 도료형 바닥재는 총매출액의 30%로 연간 5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병윤사장의 야심은 대단하게 느껴진다.년간 30%의 신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약 120여 업체의 바닥공사 시공실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숙련된 시공 Team을 육성하여 전사원이 기술자이고 젊은 기동성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앞으로 첨단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작업환경은 맑은 공기속에서 일하게 되며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깨끗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료형 바닥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lean Room에 사용되는 바닥재는 청정도 Class 10,000~1,000,000에 적용되는 절연성 바닥재와 청정도 Class 1~10,000에 적용되는 도전성 바닥재가 있다.

상진케미칼의 도전성 바닥재는 시멘트바닥면에 직접 도포하여 Self heveling하며 요구하는 색상으로 시공하는데 두께 3~5mm 전체가 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선접지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진케미칼(대표: 이병윤)은 1992년도에는 법인 설립을 할 것이라 하며 매출 목표는 20억원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남북의 화합시대로 진입하는 1992년도를 맞이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발맞춰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진케미칼은 마크가 상징하듯이 전직원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으로 기대된다.